

## 우리는 우리조차 용서하지 못했으므로

빌라촌에 들어서자 폭설은 한층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사선으로 쏟아지는 눈발에 골목은 구석구석 표백되고 있었다. 전봇대 한쪽에 집채만치 쌓인 종량제 봉투 더미와 버려진 가구들의 윤곽이 구김새처럼 도드라졌고, 담장을 뺀어 나온 감나무 가지 위로 하얀 상고대가 표표히 쌓여갔다. 머플러의 배기음마저 하얗게 질려 사라지는, 때아닌 3월의 백야였다.

머리에 영기는 눈송이를 걷어내며 나는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골목은 저체온증에 걸린 것처럼 추웠다. 소복하게 쌓인 눈더미 위로 퍼석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이 찍혔다.

“빨리 갔다 와. 짐도 얼마 없다며.”

골목 양옆으로 줄지어 늘어선 빨간 빌라 건물들을 훑어보며, 동생이 피곤한 목소리로 재우쳤다. 나는 유리문 손잡이를 당기다 말고 동생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안 들어가 볼 거야?”

동생은 대꾸도 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려다 말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봉대로 싸인 원발이 짐짝처럼 질질 끌렸다.

202호 문고리를 돌리자, 날카롭게 귀를 찌르는 쇠소리와 함께 쿵쿵한 냄새가 얼굴로 훅 끼쳐왔다. 5평 남짓한 방 안은 몇 년간 주인이 없었던 집 같았다. 기울어진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한쪽 문짝이 누렇게 변색된 장롱과 밀창이 다 닳은 운동화 한 켤레, 낡아빠진 구두 한 켤레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전부였다. 군데군데 숨이 튀어나온 누비이불과 수저 두 쌍, 갈색 잔여물이 눌러붙은 스테인리스 냄비와 옷 몇 벌 정도가 더해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살림살이인 건 여전했다. 그나마도 웬만한 가구들은 전부 옵션이었으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거의 없는 셈이었다. 도저히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니

외려 순순히 납득이 됐다.

집주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월세방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와 집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오는 아득한 괴리감에 꽤 긴 시간 동안 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도 집이 있었다는 것, 정확히는 아버지에게도 일정한 생활권이란 게 있었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집.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드는 아버지의 모습. 쉽사리 상상이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뭘든 입에 들어가면 음식이고 몸에 걸쳐지면 옷이었던 사람이었다. 항상 최소한으로 사는 게 몸에 밴 사람. 그런 나머지 제 자식들에게 마저도 최소한의 관심만 줬던 사람. 집 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한 까닭 모를 불안함은 어쩌면, 그런 대책 없는 생계관에 대한 거부반응이었을지도 몰랐다.

조약한 비문을 억지로 읽어내려가는 듯한 느낌은 방 안에 들어설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았다. 캐리어 안에 짐들을 대충 옥여넣으면서도 이곳이 정말 아버지의 방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좁은 방 안의 배경에 놓인 아버지를 상상할 때마다 그 모습은 빗발치는 눈에 덮여가듯 점점이 열어졌다. 아버지는 이 방을 떠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방에 없었던 사람 같았다. 간신히 아버지의 왜소한 뒷모습이나마 떠올릴 수 있게 된 건 장롱에 걸린 옷가지를 걸어내는 사이, 발치에 채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을 때였다.

상자 안쪽에는 문서들이 위태로운 돌무덤처럼 가득 쌓여 있었다. 나는 스테이플러로 묶인 문서철 하나를 꺼내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갔다. 제목과 소제목 아래로 작고 빼곡하게 들어찬 글자들은 한 문장당 세 번은 반복해서 읽어야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난해했다. 법조문이었다. 상자 중앙에 차곡 차곡 쌓아놓다가 용량이 부족했는지 초과분들은 상자 가장자리에 억지로 박아넣은 모양이었는데, 꼭 국화로 둘러싸인 관 같은 모양이었다. 얼떨결에 떠오른 표현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정확한 표현인지도 몰랐다. 초라한 아버지의 유품들 가운데 이것만큼 당신의 생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은 없었으니까. 낡은 재판기록을 접어 상자 귀퉁이에 킁킁거리며 쑤셔 넣었을 아버지의 모습이 어렵פות하게 그려지자, 약간의 동정 정도라면 예의의 범주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문서철을 집어 들었을 때, 나는 정곡을 찔린 사람처럼 가슴 한

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천칭 모양의 워터마크가 새겨진 용지 위에 굵은 글씨로 문서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부당 명령에 의한 상해 군인 배상에 대한 소]

“이게 다야?”

내가 끌고 나온 캐리어를 받아든 동생이 물었다. 단출한 무게가 뜻밖이라는 듯한 눈치였다. 나는 멧쩍게 웃으며 최대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일단 넣어놔. 나머진 내가 갖고 갈게.”

동생은 어색하게 말려 올라간 내 입꼬리를 수상하게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트렁크 쪽으로 향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다시 건물 층계를 올랐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자는 수산시장 한구석에 전시된 생물 아귀처럼 커다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문서철을 다시 집어 들었다. 문서철은 손안을 꼭 채울 만큼 두툼했는데, 스테이플러 심 하나가 끝나는 지점에 또 하나의 심을 박아 넣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재판의 실제적인 기간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도 적은 분량일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변호사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아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어보면 딱 절반이었다. 15년. 동생이 잘 다니던 중견 로펌을 나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의 대학이란 대학을 다 돌아다니던 내가 40줄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지방 사립대의 조교수 자리 하나를 얻을 동안의 시간이었다. 나름 번듯했던 변호사 사무실이 구멍 난 풍선처럼 빠르게 줄어들다 중국엔 도시 외곽의 허름한 빌라 방 한 칸으로 압축되는 동안, 당신의 책장 한쪽 구석에서 손가락 두 마디 만한 암덩어리 하나가 조용하고 분명하게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는 무식하리만치 끈질기게 그 사건을 물고 늘어졌다.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당사자의 정성 따위는 법의 안중에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송 결과는 패소였다.

장장 15년을 갈무리하는 선고 공판이 열렸을 때, 방청석에 앉아 지켜본 아버지의 뒷모습은 한없이 노쇠하고 둔한 노인의 것이었다. 보다 못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중간중간 몇 번이나, 나중에는 거의 애걸하는 수준으로 아버지의 착석을 권유할 때마다 완고하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던, 패악에 가까웠던 당신의 고집 또한 그랬다. 판결문을 낭독하던 판사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몇몇 방청객들마저도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건 행려병자처럼 깡마른 아버지의 체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주장은 인정되는 것보다 기각되는 것들이 훨씬 많았다. 원고 측 주장을 요약한 문장 뒤에는 거의 항상 ‘그러나’가 뒤따라 나왔고 ‘따라서’로 시작하는 문장은 매번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끝났다. 뭐가 그렇게 부적합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인정되지 않은 건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나조차도 화가 날 지경이었다. 판결문이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원고의 변호인에서 재판의 피고인이 되어갔다. 15년의 노고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반박당하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두 팔로 청구인석을 짚고 선 채로 판결을 청취했다. 두 어깨는 답답할 정도로 초라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얼마 안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인근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나는 동생에게 아버지와 그 재판에 대해 넌지시 얘기를 꺼냈다. 밀려들던 조문 행렬이 차츰 누그러든 사이 끼니를 때우던 참이었다. 대놓고 짜려보기부터 할 줄 알았던 내 예상과 달리, 동생의 표정은 시름을 던 사람처럼 한없이 초연했다. 장례식이 끝나갈 때쯤, 동생이 말했다.

“아마 안심하셨을 거야.”

동생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결과가 상관없을 정도로 당신에겐 너무 긴 재판이었으니까.”

트렁크 안쪽에 상자를 싣기 무섭게 나는 동생을 재촉했다. 쿨럭이는 엔진 소

리와 함께 차체가 미약하게 진동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알 수 없는 표정과 함께 나를 힐끔거리던 동생이 어느 순간 내게 물었다.

“그 상자, 법정 자료들이지?”

나는 동생을 바라봤다. 물어보는 투였지만 확신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내가 더듬거리며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동생은 짐짓 무감하게 대꾸했다.

“아마 그것도 줄인다고 줄인 걸 거야. 세월이 40년인데.”

“꼭 서로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네.”

“전문가끼린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곤 어깨를 으쓱거리는 모습에,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창밖으로 흘러가는 빨간 건물들로 시선을 옮겼다. 있잖아, 하고 내가 다시 입을 연 건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때였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였어?”

동생은 눈동자를 굴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짐짓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뉴스에까지 부고가 나올 정도면 대단하긴 하신 거지.”

“아니. 변호사로서 말이야. 전문가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며.”

내가 앉은 자리에서 동생을 향해 몸까지 돌리며 물었다. 동생은 잠깐 앓는 소리를 내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이런 거야. 동양 철학으로 석박사 딴 사람이 칸트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겠어? 기본적인 건 대답할 수 있어도 자기 전공만큼은 아닐 거 아니야. 나도 똑같아. 인권법이니 뭐니 하는 걸 배우긴 했지만, 나는 주택법 전문인데 뭘 알겠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나도 몇 다리 건너서야 들은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홀로 머쓱해하며 다시 창밖을 일별했다. 별안간 짹짹한 자극에 입꼬리가 비틀거렸다. 동생과 이런 대

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아버지와 동생이 절연한 뒤, 동생과 나 사이의 연락도 자연스레 끊어졌다.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주고 받긴 했지만 그마저도 언젠가부터는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 속에 은근슬쩍 넘어가게 된 지 오래였다. 아버지라는 접점이 사라지자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다. 10년이 넘게 사실상 남남으로 지내다가, 이제 와 다시 하게 된 대화다운 대화의 주제가 또다시 아버지라니. 이런 것도 혈연이라고 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었을 때였다.

“하긴, 여간 유명한 게 아니고서야 아버지 장례식이 그렇게 성대했을 수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에, 나는 재풀에 놀라 순간 말을 멈추고 동생의 눈치를 살폈다. 불쾌한 굴곡이 동생의 얼굴 여기저기에 퍼져 나가 있었다. 나는 멧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가만히 백미러를 응시했다. 작은 묵주에 껴인 진갈색 십자가가 최면추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아버지의 명성을, 나와 동생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이르러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전국변호사협회부터 시작해 전국 각지의 인권단체, 몇몇 중견기업 노조에서 보낸 화환이 한시가 멀다 하고 배달되었고 명부는 각종 기관장들의 이름과 직위로 도배되었으며 이따금씩 정치면만 펼치면 보이는 얼굴들이 방문해 짧은 조의를 표하고 사라졌다. 영정 앞에서 허리를 펴기가 무섭게 명함을 건네며 끈질기게 들러붙는 기자들 때문에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아까우신 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던 우리는 꼭 허영과 가식으로 점철된 문학회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신랄한 비판과 지적의 문장들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비애에 빠진 표정과 영혼 없는 박수만을 강요받았다. 슬픈 척하고 서 있는 일이야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생계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뒤떨어졌었는지, 아버지가 ‘있기만 한’ 고아들로 살아온 유년이 얼마나 기구했는지는 나와 동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사실은 역으로 우리의 입을 막았다.

“사람들은 다들 그래.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이 각박한 시대에 몇 없는 의인이셨다면서 말이야. 나는 그럴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공백 같은 사람이니까.”

이어지는 말을 덧붙이며 동생은 작게 몸을 떨었다. 못다 한 말을 품은 채 흔들거리는 종이인형 같았다.

“몇 번이나 이해하려 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단조로운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근 7년을 찾지 않았다. 어쩐다냐, 일이 바쁘다느니. 우리가 아버지의 행방을 궁금해할 때마다 할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는 당신조차도 그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마지막 행선지가 서울이었다는 것뿐이었다. 다달이 들어오는 돈봉투로나마 생사만큼은 알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주기와 액수가 불규칙해지더니 곧 끊기고 말았다.

다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중학교 2학년 겨울, 조간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난 기사를 통해서였다. 서울로 갔다는 아버지의 소식은 생뚱맞게 어느 변화한 항구도시에서 들려왔다. 아버지가 모 부두운영사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지속적인 임금 체불 배상 사건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였다. 가족들에게 단 한 번의 기별조차 없었으면서 남들 다 보는 신문 속에서는 누군가와 열싸안으며 환히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와 동생에게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나도 모르는 새에 사생아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좀처럼, 아니, 아예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그제야 두 자식과 같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깃 끝이 다 헤진 볼품없는 정장과 선연하게 돌아난 두 눈의 실핏줄, 흘끔흘끔 고개를 내민 흰머리. 다 죽어가는 몰골로 식탁에 앉아 묵묵하게 입안으로 밥을 밀어 넣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속에서 부아

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건 설움 같기도 했고 울화 같기도 했지만 한 문장으로는 끝나지 않을 질문 같기도 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게 우리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우릴 생각한 적은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우리의 호적 상에만 있는 사람이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을 받았다 한들 그 사실이 꽤 많은 것들이 결핍된 우리의 어린 날들을 보상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었다. 대의를 위해서였다는 말은 아버지의 삶 주변부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이들이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어도 우리 남매의 유년은 방치와 쓸쓸함으로 박제되어 있었다.

물론 우리의 각박했던 유년이 아버지와 우리가 절연한 이유가 되진 못했다. 졸든 싫든 나는 동생에게 누나였고 동생은 내게 동생이었던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다. 우리 세대에서 혈연이란 웬만한 이유로는 끊어낼 수 없는 필연이었다. 어쩌면 문제였던 건 아버지의 투철한 직업 의식보다 당신의 서툰 화법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으레 걱정보다 호통으로 사랑을 표현했듯 당신은 당신만의 거리와 방식으로 우리를 보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남매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건 아버지의 대책 없는 생계관념이나 지나칠 정도로 투철한 직업의식, 남겨진 나와 동생에 대한 소홀함 따위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한 건의 소송이었다. 아버지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맡아왔던 한 건의 소송. 부당 명령에 의한 상해 군인 배상에 대한 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요?”

동생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봤다. 사무실 바깥으로 새어나간 소리가 복도를 왕왕 울렸다. 검은 자개 명패에 새겨진 ‘인권 변호사’라는 글귀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번들거렸다.

“그 사람이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싸죽인 사람들 중 엄마가 있을지도 모른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동생이 한껏 붉어진 얼굴로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나는 동생을 말리지 않았다. 나 하나의 감정을 삭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의 참담함.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동생의 말을 이어받아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색하리만치 낮게 간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다.

“어떻게, 계엄군이었던 사람을 변호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도무지 저의를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선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대답은 중요치 않았다. 동생으로부터 아버지가 맡은 소송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당신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그 결정에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든 간에 아버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은 자명해 보였다.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선악을 따지기에 그날의 이야기들은 너무 오래되고 더할 수 없이 많이 파헤쳐진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제한 채 넘어갈 수는 없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설령 그들의 폭력이 부당한 명령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고 해도, 결국 엄마가, 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들의 곤봉과 총칼을 맞고 죽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그들을 우리와 같은 피해자로 취급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제기한 소송은 우리 모두에 대한 기만이었다. 무수한 죽음에 대한 기만.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기만. 아직도 그날의 매캐한 공기와 군청색 광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만. 죽은 엄마와 우리 남매에 대한 기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건 우리 모두에 대한 모멸이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그날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사이에는 시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기억이 간극처럼 남아 있었다. 아무도 화해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건 그날 그 도시에 있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당신의 모든 행동들까지 자못 다른 의미로 읽히게 했다. 가족들보다 자신의 알량한 원칙과 정의가 항상 앞

셨던 사람. 열 살배기 아들의 독감보다 부당하고 노동자의 재판이 더 중요했고 딸의 중고등학교 졸업식보다 생면부지의 판자촌 철거민들의 안위가 우선이었던 사람. 여태껏 아버지였으나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 무정한 사람.

더 이상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았다.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으므로 더 이상 관심이 가지도 않았다. 소송이 어떻게 됐든, 계엄군으로 차출됐다가 정신병을 얻었다는 그 노인이 죽었든 살았든, 아버지가 그 재판을 이기든 지든 우리와는 더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다. 아니,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의 정의는 여전히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차창을 내린 동생이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가웃거리는 것으로 영성한 대답을 대신했다. 학교는 동생의 사무실과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었다. 괜히 나 때문에 에둘러 가게 하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깔끔했다.

주말 오후였음에도 읍내의 거리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했다. 나는 차창에 고개를 바싹 가져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서 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리고 아버지 짐들은.....”

나는 말끝을 의뭉스럽게 흐리며 트렁크를 응시했다. 동생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쓰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마. 어디 갖다 버리진 않을 테니까.”

통명스러운 동생의 대답에 나는 민망하게 웃으며 차창에서 고개를 뺐다. 동생은 간다는 말도 없이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섰다. 황량한 도로 위에서 동생의 차가 사라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던 얼굴이 왠지 할 말이 더 남은 사람 같아 어딘가 찝찝했다.

터미널은 건물은 직육면체 모양에 아래위로 긴 창문 몇 개가 달린 단조로운 구조였다. 금이 간 계단 층계나 입구 양옆의 화단 상태는 이 건물이 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 맨 윗부분에서부터 검게 내려앉은 긴 땃국물 자국은 낙후된 도시의 시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했다.

한쪽 발을 영성하게 내디디며 입구 계단을 오르는 내 시선을 잡아끈 건 터미널 유리문 옆, 입구 한구석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자였다. T시 시외터미널 장애인 노동자 연합. 남자는 자신의 목발과 피켓을 베개처럼 끌어안은 채 쨍한 눈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때맞춰 불어온 차가운 바람 때문인지, 남자의 몸을 관통하는 오한 때문인지 붉은 바탕으로 마감된 피켓이 양옆으로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남자가 산송장처럼 움푹 들어간 두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자기 앞에 가지런히 쌓여 있던 전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일면식 없는 얼굴이었음에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피켓과 표어, 살벌한 구호로 가득한 전단들과 일인시위. 인문대 교수회의 침묵은 학생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불현듯 기억 너머의 선득한 문구가 눈가에 어렸다. 나는 남자가 말없이 건넨 전단을 집어 들곤 도망치듯 유리문을 통과했다.

역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승객들의 발걸음에서 녹아내린 눈에 역사 바닥은 물이 고인 것처럼 찰박거렸고 녹지 않은 검은 얼음 조각들이 쓰레기들과 뭉쳐져 이리저리 나뒹굴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입구 앞의 남자가 나눠주던 전단이었다. 검게 물든 전단 문구들은 역사 바닥 위에 치덕치덕 달라붙은 채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해조류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뽑았다. 기계에서 출력된 건조한 음성이 텅 빈 대합실의 고요를 가로질렀다. 역사 입구가 진창이었다면 대합실 안쪽은 시궁창이었다. 음료수 캔이나 담배꽂초, 컵라면 용기 같은 쓰레기들이 즐비하게 굴러다녔고 세 칸짜리 대기석들은 하나같이 가죽 시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을 묻힌 채 3열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버스 플랫폼 한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선 채로, 나는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 놓았던 전단을 펴 읽었다. ‘T시 터미널 운영진 측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직설적인 문장 아래로 일련의 설명들이 목차에 맞춰 나열되어 있었다. 설명은 장황했지만 요는 간단했다. 터미널 이용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시행된 구조조정에서 터미널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우선순위로 해고대상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을 만큼 익숙해진 얘기였고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차별 문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외면된 사안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전단을 주머니 속에 구겨 넣으려던 그때, 전단 맨 밑에 각주처럼 인쇄된 문구 하나에 내 시선이 멈춰섰다.

-모두가 상처 없이 만날 그날까지-

나는 전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먼 곳에서 섬찝한 칼바람이 불어왔다. 귀와 손등이 마비된 것처럼 뒹뒹했다. 나도 모르게 질끈 주먹이 쥐어졌다. 사각거리는 전단의 울림이 경고성처럼 몸을 타고 올랐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비열해지는 순간들이 있는 법이다, 선화야.”

마지막으로 대면했을 때, 아버지는 환자복 소매로 돋보기안경 렌즈를 주섬주섬 닦고 있었다. 표정은 어느 한 군데 병환조차 없는 사람처럼 태연했지만 재판장에서 봤을 때보다 한층 더 어둑어둑해진 낮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인지 되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대답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저에 대해 뭘 아시는데요?”

의미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말이었다. 알량한 조교수 직함 밑에 숨겨둔 치졸함과 열패감, 죄책감들이 말의 떨림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날의 기억이 하얗게 일렁이며 불시에 머릿속을 뒤덮었다. 그날.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잡다한 필기구와 연구용 서적들로 가득 채워진 플라스틱 상자를 든

채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날. 새로 배정된 교수실로 짐들을 전부 옮기고 있던 그날.

창문 외벽 너머 정문 입구의 벚나무길이, 가지마다 매달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부끼고 있는 하얀 종이 인형들이 눈에 들어왔다.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연례행사였다. 소원을 적은 작은 쪽지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접어 나무에 거는 봄맞이 행사. 해마다 제각기 다른 모양, 다른 내용이었던 쪽지들이 이번만큼은 하나같이 같은 모양에 같은 내용으로 벚나무 가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다시 상처 없이 만날 때까지, 부디 안녕.-

그건 체념과 저항의 시선들이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교정에 대한 작별이었고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든 걸 내팽개쳐 둔 나 같은 비겁자들에 대한 소리 없는 질책이었다. 당신들이 책임용 심사에 아등바등 매달려보겠다고 침묵하지만 알았더라면. 교수회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인문대 폐교라는 재단의 결정을 비판해줬더라면. 최소한 정의론이라는 걸 가르치는 나 같은 철학과 교수들만이라도 학생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줬더라면.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내가 들고 있던 상자를 떨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서리에 정통으로 찍힌 발등의 시큰함이 잦아들고 나서도 나는 시선을 들 수 없었다. 나에게서 또다시 무엇이 어떻게 쏟아질지 알 수 없었다. 주인을 잃은 소망들의 거리. 나는 그 풍경을 내려다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안경을 쓰지 않은 맨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측은한 눈빛은 힐난에 가까운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아버지는 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어쩌면 전부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남들은 의인이라 추앙해 마지않는 당신의 장녀가 학사재단의 책임용권이라는 커다란 권력 앞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침묵했는지를, 얼마나 속물처럼 굴었는지를.

나는 아버지가 나를 비난해주길 바랐다. 크게 실망했다고, 어떻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럴 수 있느냐고.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라면 응당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눈시울에 작은 물방울이 고이기 시작

했을 때,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말은 그 어떤 예상과도 달랐다.

“나라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았겠니.”

넋두리하듯 읊조리는 말투로,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신의 이야기였다.

“이해도, 용서도 하고 싶지 않았어. 변호야 뭐, 말할 것도 없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찻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에 폭탄이라도 터진 것마냥 기겁을 하는 걸 본 뒤로는, 그 사람도 여태껏 그날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안 뒤로는.....”

아버지는 목이 메는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안경을 고쳐 쓰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앙상하게 벌거벗은 나무가 시야 끝에 걸렸다.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려무나. 원래 우리는 우리조차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작은 참새 하나가 나무 조각을 입에 문 채 연신 도리질을 쳤다. 우듬지와 나뭇가지 사이에 트인 동지가 위태롭고 견고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중요한 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모두 화해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

판결문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소송 명을 전부 입력하기도 전에 연관 검색어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잠수부처럼 길게 숨을 몰아쉬곤 지그시 검색 결과를 눌렀다. 익숙한 양식의 페이지들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화면을 옆으로 누어 읽어야 했다. 몇 번을 읽어도 난해하기 그지없는 문장들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읽었다. 독해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있을지도 몰랐다.

“지금 그 사람네 집에 가고 있어.”

별안간 전화를 건 동생은 대뜸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란 게 누구인지는 굳이 동생의 입을 통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의뢰인이자 재판의 원고였던 그 사람. 아버지의 재판기록을 넘겨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아버지의 싸움이 얼마나 길고 치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에게 더 의미있을 테니까. 변명 하나 없이 그렇게만 말하는 동생의 목소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반대하지도, 동생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동생에게 서류상자를 넘기기로 했을 때부터, 동생의 복잡미묘한 표정을 알아챘을 때부터 동생의 저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다. 나는 다만 이렇게 물었다.

“선우야.”

“응.”

“그날 그 재판에 너도 있었지?”

선우는 말하지 않았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바른 채 앞쪽 방청석에 앉아있던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서렸다. 건너오는 침묵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었지만 나는 알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으려 했을 때, 선우가 나를 불렀다. 누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자기 자신도 함께 용서하는 거래.”

“좋은 말이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잡지 인터뷰에서.”

선우와 나는 길게 침묵했다. 누구의 입에서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헛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조심해서 가. 누나도. 우리는 짧은 안부를 주고받은 뒤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기어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 결심이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시길.

나는 통화 목록을 뒤져 일전에 연락이 왔던 기자의 전화를 찾아냈다. 인문대

학생들의 행진 시위가 있던 날짜가 전화번호 옆에 찍혀 있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액정 너머에서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을 쏟아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U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강선화 교수라고 합니다. U대학교 재단의 인문대 강제 폐교 건과 관련해서 제보를 하려 하는데요.”

버스 차체가 둔중하게 진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리춤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잠시만요, 전화기 저편이 갑작스레 분주해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차창 밖을 응시했다.

오밤중이나 그칠 거라던 눈은 벌써부터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다. 회칠한 듯 희끄무레하던 하늘은 조금씩, 그러나 맑게 걷히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이 낮설었다.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시선을 돌리진 않았다. 밝고 푸른 빛. 그게 원래 하늘의 색이었다.